

# 자료창고



## 사회적 방어 (Social Defence): 행동들1)

### 행동(The Action)(1)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sup>2)</sup>

번역 : 정용욱(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jyuk@jinbo.net)

## 리플렛

리플렛이나 정보지 제작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대단히 효과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리플렛을 집필, 편집, 그리고 제작하는 일에 관여한다면 참여자 모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증대시키게 된다. 반면, 한 사람이 고립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사회적 방어와 연계되지 못한 외곽 사업으로 다뤄진다면 제작 과정의 효과는 한계를 갖게 된다.

계획된 리플렛의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에 외부인들을 참가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 사례 1

1982년, 4명의 '캔버라 피스메이커'(Canberra Peacemakers) 소속 회원들은 사회적 방어에 관한 대규모 정보지 제작에 착수했다. 우리는 먼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관해 장시간의 토론을 한 뒤 초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했다. 우리는 완전히 탈고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서로의 초안에 대해 검토했다.

1) 이 글은 전쟁저항자인터네셔널(WRI)이 1990년 4월 영국 브래드퍼드에서 열린 학술회의 "Nonviolent Struggle and Social Defence" 내용을 정리하여 발간한 『Nonviolent Struggle and Social Defence』(1991) 중 「Social defence : arguments and actions」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 구성은 크게 '논쟁(arguments)'와 '행동(action)'으로 나뉘져 있으며, 각각은 다시 여러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글을 쓴 브라이언 마틴은 진보적 성향의 과학자로서, 1970년대부터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에 동참하며 이 분야에서 폭 넓은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 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과학기술학부에 재직 중이다.

**“리플렛은 배포과정보다는 제작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때 보다 큰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글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돌려 보았다. 의견을 수집하고, 그들과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것 (때로는 바뀌지 않기도 하지만) 은 제작 과정을 복돋아 준다.

여기에는 정보지에 들어 갈 이미지, 특히 만화를 수집하는 작업도 있다. 우리는 글이 완성된 뒤 내용을 활자로 짜고 본문과 이미지들을 편집했다.

그 결과가 사회적 방어 대판지(大版紙)였다. (대판지는 보통 신문 낱장 크기이다) 우리는 이를 부수적인 작업 정도로 생각했었지만 뜻 밖에도 그 효과는 대단했고 수 년 간 지속되었다. 이 정보지는 캐나다 판과 영국 판도 제작되었다.

2년 뒤, 우리는 소련 독자들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본문을 개정하고 러시아어 번역을 포함시켜 러시아 판 대판지를 제작했다.

## 사례 2

1983년 ‘캔버라 피스메이커’는 “사회적 방어와 공무원”이라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정부 관료들을 공무원(public servants)이라고 부른다. 캔버라는 수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시 전체 노동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공무원 친구들 몇몇을 리플렛 아이디어 개발 모임에 초대했다. 우리는 칩탁이나 쿠데타에 맞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 몇 차례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 벽에 종이를 붙여 놓고 쏟아 내는 생각들을 적는 것)을 가졌다. 그리고 제기된 아이디어들에 관해 논의했다.

리플렛 초안이 작성된 후, 우리는 글의 정확성이나 글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이것을 모임 내 다른 사람들은 물론 몇몇 다른 공무원들과도 돌려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방어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들을 소개하는 전단지가 나오게 되었다. 이 전단지는 전복적인 성격을 띠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리플렛은 배포과정보다는 제작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때 보다 큰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 배포

리플렛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될 수 있다. 책장

**“만일 사회적 방어를 위한 지역 주민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줄 수 있다”**



선반 등에 진열될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집회 때 뿌러지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내질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리플렛 사용 방식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모든 우편함에다가 리플렛을 넣어 두는 것은 대개 시간과 종이 낭비로 그치고 만다. 이 보다는 사회적 방어가 화제에 오를 때 사람들이 리플렛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사회적 방어에 관한 토론이나 화제를 이끌어 내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리플렛을 소개해 줄 수 있다. 만일

사회적 방어를 위한 지역 주민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줄 수 있다.

## 사례

러시아 판 사회적 방어 대판지를 제작한 후에, 소련으로 복사본을 전달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소련으로 밀반입을 하는 몇몇 조직들과 접촉했고 그들이 소지할 수 있는 대판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소련으로 여행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복사본을 전달했다. 1984년이 되면서 많은 수의 반체제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러 그룹과 개인들에게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러한 전달의 결과 우리는 소련 독자로부터 몇 차례 답장을 받기도 했다. 리플렛이 민주주의를 이끄는 저항 인쇄물의 하나로 억압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판지가 KGB에 의해 가로채어졌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읽는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

평화인권연대가 발행하는 평화인권저널

# 평화연대

# 6월호

monthly (2005.6.8)



커버스토리 故 김선일 1주기에 즈음하여

특집 노동감시의 위험성

PeacemakerR 공판중심주의와 사법개혁

자료실 수단과 방법들 **닉출발**

평화인권연대  
[peace.jinbo.net](http://peace.jinbo.net)